

1 부. 너도밤나무와 성경 읽기

1. 독일에 처음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유학생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며 지냈지요. 누군가 머리를 잘 깎는다고 하면, 저는 그 집에 먹을거리라도 조금 사 들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2.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밤송이들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옳거니!' 싶었습니다. 얼른 주워 담았지요. 가시가 그렇게 역세지도 않았습니다. 손도 찢리지 않았지요. 한 자루 가득 담아서 친구 집에 가져갔습니다.
3. 친구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밤 아니에요. 너도밤나무 열매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4.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본문이 가리키려는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실 하나를 따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너도밤나무를 보고 군밤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5. 요한복음 6 장의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배고픈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으니, 우리도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 역시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6.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요 6:5).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요 6:6).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은 벳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있는 곳도 벳새다였기 때문이겠지요.
7. 예수님은 낯선 곳의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장정만 오천 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식당을 알아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암스테르담을 잘 아는 사람이겠지요. 아마 화란한인교회 목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 근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8.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의 관심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구도한다", 또는 그냥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9. 사람은 본래 무엇인가 얻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잘되고 싶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을 헛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10. 오병이어의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2 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보라

11.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기적 이야기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란 그것을 드러내는 책이지요.
12. 그러므로 오병이어도 단순히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자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3. 그날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서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지요. 장차 일어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4.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훗날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떡처럼 내어주실 것입니다. 찢기고 나누어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5. 우리는 자꾸 떡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떡. 나를 편하게 해 줄 떡.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줄 떡. 하지만 성경은 자신을 떡으로 주시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던져 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6.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천 명이 먹은 장면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지요.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마지막 장면은 이것입니다.
17.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요 6:12)."**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요 6:13)."** 왜 요한은 남은 조각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까? 왜 열두 바구니라고 숫자까지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18. 예수님께서 관심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배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남은 조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먹고도 남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니다.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19.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오천 명을 먹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천 명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떡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었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3 부. 열두 광주리 —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

21. 그렇다면 열두 광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많이 남았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굳이 열한 광주리도 아니고, 열두 광주리라고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성경에서 숫자는 때때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찬 남은 떡"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2.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은 밖으로 향하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23.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지요. 하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지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십이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4.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 백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아흔아홉 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마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5.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이 원한 것은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스러기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6.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물론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병이어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몇 명이나 먹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은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아라."
2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찾으러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8.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은혜가 남아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9. 오병이어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침으로 끝납니다.
3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떡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나의 사랑은 아직 남아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떡은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